

값싼 은총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둘러쳤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즙을 짜는 환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포도원의 소출 일마를 받아 오라고 종 하나를 소작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려주고 빈 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그 종도 머리를 쳐서 상처를 내고 갖은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때려 주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인이 보낼 사람이 아직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그 아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내어 내 아들이야 알아 주겠지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게 상속자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며 서로 잔 다음 그를 잡아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돌아와서 그 소작인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마가 12:1-9)

1966년 제가 뉴욕에서 공부하던 때 일입니다. 그 해는 미국 역사 이래 유난히도 가물어서 식수마저 아껴 써야 할 정도로

가뭄이 심했었습니다. 뉴욕의 저수지 물은 매일 줄어들기만 했고 그래서 온 시민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뉴스 시간마다 그날의 저수지 저수량을 측량해서 방송하면서 제발 물을 아껴 달라고 아나운서들이 시민에게 호소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상한 식수난이 있었을 무렵에 흥미있는 뒷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뉴욕시 직원이 저수지 측량계를 온종일 들여다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15분마다 또는 30분마다 저수지 물의 양이 폭폭 줄어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당국은 이렇게 15, 30분마다 저수지 수량이 줄어드는 이유를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재미있는 엉뚱한 이유를 찾아냈었던 것입니다.

저수지 물이 가장 많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의 소위 T.V 황금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이 미국 T.V에서도 15분마다 30분마다 T.V의 광고 시간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업 광고 시간마다 T.V 시청자들의 거위가 변소에 가서 용변을 보게 되는데 뉴욕시민이 일제히 그들의 수세식 변소를 쓰기 때문에 저수지 물이 폭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 사람들도 T.V 상업광고를 기피하고 싫어한다는 것이 이 사실에서 증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신문지상에서 T.V 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가끔 실려지고 있습니다. 광고라 하면 그리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반문할지 모르나 사실 이러한 광고 미디어가 우리의 의식구조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식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행복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T.V광고란 많이 팔겠다는 견지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어디까지

나 사실 이상으로 선전해서 이익을 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유별해서 정리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소위 풍족하고 유복한 생활을 하려면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면을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먹는 물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세한 통계는 없지만 오늘의 TV상업광고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먹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먹고 마시는 음식에서 시작해서 모든 감각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대중의 구미를 돌구는 광고입니다.

먹고 먹어서 다 먹어 치우는 문화, 먹기가 어려우면 껌이라도 씹어야 한다는 광고, 그래서 무슨 고구마장이나 새우장이나 쭈쭈바니 하는 어느 나라의 말인지도 알 수도 없는 상품의 이름을 시청자에게 주입시키고 강매하는 듯한 광고, 또 먹어서 탈이 나면 위장병을 고치는 약 광고, 그리고 먹어서 체력을 향상하고 그 체력이 소모되면 강장제로서 보충이 된다는 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물질 문명의 뜻은 먹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음식도 먹고 사람도 먹고 돈도 먹고 권력도 나누어 먹자 하는 듯한 문화입니다.

둘째로는 아름답게 꾸미자는 광고입니다. 화장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구 자동차 여자들의 장신구 옷감 등 걸치례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TV화면에 나타납니다.

세째로는 무슨 물건이든 편리한 것을 원하는 인간의 마음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편리한 것,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계로써 산뜻하게 깎아 만든 것, 세탁기로 깨끗이 씻어서 보여주는 듯한 빨래 등등, 무엇이든 단추를 눌러서 우리의 쾌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즐줄 나오는 편리한 것을 보여주는 문화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생산품을 구입해서 이루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하여 물질문화에 대한 동경심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귀엽게 살찐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놓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앉아서 이러한 물질을 이용하면 인생에 둘도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리게 하는 것, 이것이 TV상업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결정적인 효과이며 또 노리는 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의 우리 문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러한 상업광고로써 표현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금욕주의자들이 되어서 이러한 상업문화를 모조리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적할 것은 우리의 참된 행복이나 보람있고 가치있는 생활이 결코 이러한 상업문화에서만 찾아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문화에서 얻어지는 위침을 우리는 빨리 측정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상업문화 내지는 소비문화에서 생기는 잘못된 가치관은 사물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소모품이나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은 인간이 이용하는 물건인데 이 물건을 사랑해야 할 인간과 그 인간성을 반대로 소모품처럼 이용한다는 것이 상업소비문화에서 남겨지는 폐단입니다. 편리한 물건을 동경하는 마음, 그리고 소비문화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활감정이 점차로 이러한 물질 추구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살인강도를 하는 청소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절도행각을 했다는 사건마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해야 할 것, 이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 존경해야 할 것을 이용하고 있는 현대 소비문화의 고질이요, 병폐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어떤 포도원에서 일어난 사건, 즉 포도원 도끼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예수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며 또한 포도원 조각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려고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어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를 짜는 확을 만들어서 조각인들에게 맡기고 나서 자기는 먼 길을 떠나고 얼마 후에 그의 종을 보내어서 포도의 수확에서 얼마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조각인들은 주인이 보낸 심부름꾼에게 처음에 한 주인과의 약속대로 얼마를 주어서 보내면 될 텐데 오히려 폭행과 욕설을 퍼부어 쫓아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내서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조각인들은 전 번과 같이 욕설과 폭행을 가했고 나중에는 이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몇 차례 반복하던 포도원 주인은 생각다 못해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못된 짓을 안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각인들은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아버지의 상속자요, 앞으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터이니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전부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고 생각하고는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맞아들이지 않고 그의 유산을 빼앗으려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조각인들은 포도원을 탐내서, 아니 탐내는 것을 넘어서 자기 소유로 영원히 만들려고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그의 종 즉 예언자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모욕하고 나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분배 다시 말해서 자기의 노동의 댓가를 받고서도 포도원 주인에게 돌려야 할 분배까지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결코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이 소작인들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관의 전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소유인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아름답게 꾸미고 꿈을 꾸게 하는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신 주의 종, 예언자들을 잡아다가 폭행·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죽여 버리기까지 하는 인간의 탐욕이 저지르는 비극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권력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위탁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권력자들이 가지는 잘못 생각입니다. 이러한 착각 때문에 이 역사상에 나타난 수많은 군주·제왕·통치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물건들, 당신이 행사하는 권력,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며, 당신은 다만 소작인으로서 여기서 나오는 소산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의 종들의 의침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잡아가두는, 이를테면 오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바로의 독립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예외없이 역사상에 나타난 권력의 운명입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수많은 예언자들은 이러한 권력의 비극을 막으려 통치자들에게 간하고 제언하다가 투옥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도원 도끼사건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의 약순환을 예리하게 부각시킨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나 소작인들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종들의 운명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분부를 받고 소작인을 찾아가서 주

인의 요구를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종들이 만일 그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다른 곳에 간다든지 또는 소작인들의 횡포를 피하려고 적당하게 얼버무려 버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소작인들의 폭행이나 살인행위보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받은 포도원 종들의 운명입니다. 약삭빠르고 처세를 잘하는 종 같으면 그 소작인들이 어떤 버릇이 있는가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무턱대고 주인의 전갈을 말해주고 고생을 하느니보다 차라리 일신의 안전을 찾아서 만 곳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 신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충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주인의 전갈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증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차대전 중 독일의 나찌에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본 웨퍼는 상심한 포도원의 주인을 섬긴 종의 한 예입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주의 종으로서 바쳤고 그래서 결국 사형을 당했지만 그의 많은 저서 중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에서 자기 신앙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값싼 은총이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값비싼 은총을 믿으려 싸우는 것이다. 값싼 은총이란 바꾸어 말한다면 시장에서 마구재비로 팔고 사고 하는 물건과 같은 것이다. 싸구려 은총이란 것은 회개하지 않고 용서에 대하여 실교하는 일, 죄의 고백을 하지 않고 성찬을 하는 일, 제자의 도리나 십자가가 없는 은총,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총을 말하는 것이다.」

포도원의 주인을 섬기는 종이 만일 이러한 값싼 은총을 위해서 산다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서커스에서 사악한 맹수가 가냘픈 여자 꼭예사가 내뿜두르는 채찍 밑에서 고기 한 덩어리 때문에 재주를 부려 관람객의

흥미를 돋구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포기한 채 이 세상의 값싼 은총과 몇 푼어치의 명예 때문에 제자된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웨퍼는 당시의 독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값비싼 은총을 위해서 싸우고 기도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진 은총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교회의 교리나 조직이나 인간적인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값비싼 은총을 찾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에 따르는 모든 고난과 곤욕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너무나 쉽게 안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이 세상의 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좀 양보하고 악한 세상과 타협만 하면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 뜻과 같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다만 진리를 위해서 일할 때에만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진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참이 아닌 거짓을 쫓아 이 세상의 평안한 길을 따라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문화, 소비문화가 팽창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제자되는 길과 십자가의 도리를 포기한 채 타협하며 안이하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포도원 주인의 전갈을 충실히 전하고 이 시대에 대한 진리를 증언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싸구려 은총에 만족하며 한 덩어리의 고기덩어리 마끼에 매혹되어서 재주부리는 동물이 될 것인가 하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 양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76. 9. 9 한빛교회)